

“호남예산 확보 성과는 다당제 속 민주당과 경쟁 덕분”



국민의당이 11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예산보고대회’를 하고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 현황을 설명했다. 보고대회를 마친 후 참석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광주시의회서 광주·전남 예산보고대회

국민의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호남의 내년 국비 확보는 다당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했기에 가능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표적인 호남차별 사례인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등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충분히 따낼 수 있었던 과정에 국민의당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11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광주·전남 예산보고대회’를 갖고 내년 국비 확보 성과를 지역민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천정배, 김동철, 박주선, 박지원, 주승용, 장병완, 황주홍, 손금주, 윤영일, 정인화, 최경환 국회의원,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송기석·권은희 의원은 해외 일정 등이 겹쳐 불참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국민의당의 활약을 설명했다. 김동철 원

“전제와 균형으로 반영 가능”
주시장 불참 속 당 역할 강조
“예산 지원 제도로 정착해야”

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경쟁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 확보가 가능했고 두 당이 경쟁하지 않았더라면 호남지역 예산 캐기는 없었을 것이다”면서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합의도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경쟁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의원도 “다당제를 통한 견제와 균형으로 국회가 행정부의 시늉이 되지 않게 됐다”며 “여당이 독자적으로 국회 운영을 못 할 때 야당에서 견제하는 제3당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지역발전의

지혜다”고 말했다.

또 주승용 의원은 “이번에도 역대 국회처럼 양당체제였다면 아무것도 반영 안 됐을 것”이라고 단정하 뒤 “3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알게 된 만큼 지역에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내년 선거에서도 인재들이 선택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근 호남 예산에 대한 일부 비난 여론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경부선 KTX는 대구에서 경주와 울산을 돌아갔는데 자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호남이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해 나가는 게 필요하며 국민의당이 갈 길은 ‘예산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예산 지원이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제도로 정착돼 호남이 차별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지역평등법 등을 만들고, 지역평등위원회도 만들어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경환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호남 고속철 무안공항 예산을 공개적으로 공격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 예산 중 새만금개발 예산과 법안이 심의됐는데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고, 한국당이 퇴장을 하고 법안을 통과했는데도 법사위에 통과가 되지 않고 예산만 배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윤영일 의원은 “KTX 무안공항 경유는 얻어냈지만, 무안공항 활성화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며 “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저터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광주·전남이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안철수 ‘마이웨이’ 빨라진 ‘분당시계’

국민의당 통합 내분 격화
통합포럼 14일 부산 행사
평화개혁연대 세몰이 박차

정기국회가 폐회되면서 안철수 대표의 중도통합론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고수하면서 호남을 방문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는 반면, 호남 중진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당내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당내에서는 안철수 대표 재신임론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투표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통합’으로 한 발 물러서지 않는 한 분당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전북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등 ‘마이웨이’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외연 확대를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바른정당은 TK(대구·경북)가 아닌 수도권 정당이라는 주장과 함께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반 자유한국당 연대라는 다소 생뚱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장에서의 통합 반대 목소리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호남 중진들을 향해서는 “밖으로 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각을 세

우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오는 14일 광주를 찾겠다던 계획을 바꿔 부산에서 행사를 열고 안 대표의 통합 행보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처럼 안 대표가 마이웨이를 고수하자 호남 중진들도 본격적으로 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호남 중진들로 구성된 평화개혁연대는 통합 반대 입장인 조선 의원들의 모임인 ‘구당초’(당을 구하는 조선 의원)와 세를 합쳐 안 대표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각기 10명 안팎의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두 세력이 결합한다면 원내교섭단체(20명)에 육박한다.

이와 관련, 평화개혁연대는 오는 1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9일(전북 전주)과 27일(부산)에도 같은 행사를 계획 중이다.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국민의당은 통합론을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연발과 연초에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설을 앞두고 합의이혼 형식으로 갈라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두 세력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설 명절 이전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측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않는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安 대표의 호남중진 책임론은 호남·비호남 갈라치기”

“방문 말렸지만 강행하더니 호남에 큰 상처만 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1일 “안철수 대표가 말을 바꿔 통합을 거론하면서 ‘호남과 비호남의 입장이 달라 중재가 어렵다’고 ‘지역 갈라치기’를 하련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2018년도 광주·전남 예산보고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도통합론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해 안 대표가 호남 중진들을 비판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DJ음해로 흥분된 호남민심을 생각해 방문일정을 연기하자 해도 강행하고, 호남민은 부글부글 끓는 가슴 쥐어 잡으며 자제하는데 안 대표 지지자는 폭력을 행사하며 호남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지역구인 목포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 도중 ‘안철수 연대 팬클럽’ 소속의 한 중년 여성으로부터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호남이 상처 입는 것 같아 서글픈 하루를 보

냈다”고 토로했다.

박 전 대표는 10일 밤 11시께 이 같은 심정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 북에 올리기도 했다. 페이스북 북을 통해 그는 “저 박지원이 서글픈 게 아니라 호남이 상처 입는 것 같아 서글프다”면서 “호남의 마음, 호남정치가 상처 입을까 걱정돼 안 대표의 방문 일정을 연기하자 했고, DJ를 음해한 장본인이 안 대표체제의 지도부라는 사실로 호남이 격앙됐기에 지금은 통합논란에 불지피러 호남을 때가 아니라 했다”면서 “그래도 온다 해서 불상사를 방지해야 한다며 당원들과 호남인들의 자제를 호소했다”

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안 대표는 그 일(계란 투척)을 본 후 광주에서 ‘싸우는 정당’이어서 지지도가 안 오른다”며 호남의원들 책임을 거론했다니 참담하다”면서 “제발 서툰 계산이 아니라 국민의당을 탄생시켰던 호남의 마음을 받들 것”을 주문했다. 또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당이 양 날개의 정책연대를 통해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바른정당 따라 강남 갈 게 아니라 굳건하게 중심 잡고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 이야기

2017 담양
산타축제

2017 DAMYANG
SANTA FESTIVAL

12.15 ~ 12.31
담양읍 원도심 및 메타프로방스 일원